안 터지는 방망이… 속 터지는 팬심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시즌 2차전이 열린 2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 많은 관중이 찾아 야구를 관람하고 있다. KIA는 타선의 부진 속 개막 2연전에서 3점을 뽑는 데 그치며 2연패로 2019시즌을 열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KIA, 개막전 LG에 2패 … 양현종, 6이닝 1실점 호투에도 '패전 멍에'

터너, 5이닝 10피안타 한국 데뷔 '진땀' …챔스필드 이틀 4만여명 성황

믿었던 방망이에 발등 찍힌 '호랑이 군단'이다.

KIA 타이거즈가 23·2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9시즌 개막시리즈에서 2연패를 당했다.

지난 23일 개막전에서 양현종이 6이닝 1실점의 호투에도 0-2패 경기의 패전 투수가 됐다. 24일에는 제이콥 터너가 2회까지 7실점을 하며 흔들렸고, KIA의 무득점 이닝이 6회 1사까지 이어졌다.

2연패의 시작점은 23일 1회말이었다.

선두타자 김선빈의 볼넷으로 시작된 1회말 해즐베이커의 안타와 안치홍의 볼넷이 이어지면서 무사 만루가 됐다.

하지만 최형우의 땅볼이 상대 투수 윌슨 앞으로 향했고, 홈으로 들어오던 3루주자 김선빈이 아웃됐다. 1루에서도 공이 빨랐다.

아쉬운 병살타 이후 김주찬도 3루수 땅볼로 물러나면서 KIA는 일찍 승기를 잡을 기회를 놓쳤다.

2회말에도 이명기의 선두타자 안타와 나지완의 몸에 맞는 볼로 무사 1·2루 기회가 찾아왔지만, 한승택의 3루 땅볼 이후 최원준의 타구가 다시 한번 투수 앞으로 갔다. 이번에는 홈에서 이명기가 아웃됐다.

양현종은 8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등 1실점으로 6이닝을 막았지만 4회 김주찬의 안타를 끝으로 침묵한 타선 탓에 외로운 싸움을 하며 패전투수가 됐다. 반면 초반 제구 난조로 흔들렸던 상대 윌슨은 7이닝 3피안타 3사사구 4탈삼진 무실점의 피칭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24일은 마운드에서 먼저 점수가 샜다.

KBO리그 데뷔전에 나선 터너가 LG 톱타자 이형종과의 4번의 승부에서 3안타를 맞는 등 모두 진루를 허용하며 진땀을 흘렸다.

1회초 이형종에게 중전안타를 허용한 터너는 오지환을 2루수 땅볼로 처리했지만 김현수에게 좌전안타를 내줬다. 2사에서는 채은성의 안타와 박용택의 2루타가 이어지면서 1회에만 3실점을 했다. 2회에는 오지환과 조셉에게 홈런포를 허용하면서 KBO타자들의 매서운 타격을 경험했다.

터너는 3회에는 송구 실책도 기록하는 등 5이닝 10피안타(2피홈런) 2볼넷 1탈삼진 8실점(7자책점)으로 쑥스러운 데뷔전을 치렀다.

선발의 초반 부진 속 LG 새 외국인 선수 켈리를 상대한 타선의 침묵도 이어졌다.

1·2회를 삼자범퇴로 물러난 KIA 타자들은 3회 2사 최원준의 타석에서 첫 안타를 만들었다. 하지만 김선빈의 3루수 땅볼로 득점 없이 이닝이 끝났다. 4회 1사에서 안치홍과 최형우의 연속 안타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김주찬의 삼진 이후 이명기의 직선타가 나왔다.

5회도 삼자범퇴로 끝났지만 6회 KIA가 켈리의 송구 실책으로 모처럼 분위기를 살렸다.

선두타자 김선빈이 실책으로 살아나간 뒤 해즐베이커의 2루타가 나왔다. 안치홍의 적시타로 KIA가 마침내 시즌 첫 득점에 성공했지만, 최형우의 2루 땅볼과 이명기의 3루수 키 넘기는 2루타로 2점을 보내는 데 그쳤다.

6회가 지난 뒤 다시 타선의 침묵이 이어지면서 KIA는 2연패로 2019시즌을 열었다. 아쉬웠던 결과에도 관중석의 열기는 뜨거웠다. KIA는 개막날 2만500석이 가득차면서 시즌 첫 매진을 기록했고 24일에는 1만7597명이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시구 나선 이용섭 시장

주말 개막전 … 올해 우승 기원

2019 프로야구 개막경기가 열린 23일 KIA챔피언스필드에서 홈팀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은 이용섭 시장이 경기에 앞서 시구를 하고 있다. 이날 이 시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타이거즈 V14'를 달성하자는 의미를 담아 등 번호 '14번' 유니폼을 입었다.

이 시장은 "'최강 기아'답게 선수도, 팬들도 혹한기를 이겨내고 다시 만났다. 더욱 강해졌고, 더욱 단단해졌다"면서 "올해는 꼭 열두번째 우승(v12)의 꿈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또 "1년 내내 스포츠를 즐기는 건강한 도시 광주. 그 안에서 뿜어져나오는 역동적인 기운이 광주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KIA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오픈

카카오톡을 통해 KIA 타이거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KIA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공식 계정을 오픈했다. KIA는 이 계정을 통해 홈경기 프리뷰와 선발 투수 및 선발 라인업, 경기 결과 등 경기 정보와 각종 이벤트 소식을 제공한다. 카카오톡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앱(APP)에서 'KIA타이거즈'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 버튼을 누르면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배우 이제훈 시구에 선수들 "엄마가 팬이에요"

덕아웃 T 톡톡

▲패전 투수니까 = 6이닝 8탈삼진 1실점의 패전 투수 양현종이었다. KIA 에이스 양현종은 팀의 개막전 선발을 맡아 23일 LG를 상대했다. 6회까지 마운드를 지킨 양현종은 5피안타 1볼넷 8탈삼진 1실점의 호투했다. 하지만 경기가 0-2, 패로 끝나면서 양현종은 첫 등판에서 패전투수가 됐다. 24일 양현종은 전날 결과에 대해 "결과로는 우리팀이 졌다. 과정이 좋다고 해도 나는 패전투수이기 때문에 잘 던졌다고 위로 삼을 것도 아니다"며 "이제 시즌이니까 결과를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 우리 팀이 이겼으면 컨디션이 좋고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졌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올해는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하겠다"고 전날 패배에 관해 이야기했다.

▲영광입니다 = 23일 2019시즌 개막전 경기가 '가문의 영광'이었던 KIA 선수들이 있다. LG와 개막전을 치렀던 KIA에서는 고영창을 필두로 이민우, 이준영, 이창진, 하준영, 황대인, 황인준이 처음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고영창, 이준영, 하준영은 첫 개막전 경기도 치렀다. 선발 양현종에 이어 팀의 두 번째 투수로 나선 고영창은 "개막전에 나간 게 영광이었다"면서도 "많이 아쉬웠다. 볼넷이 가장 아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긴장은 안 돼서 잘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볼넷을 내줘서 너무 아쉬웠다"며 "스피드도 덜 나왔다. 준비 잘해서 꾸준히 땅볼 유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24일에는 '루키' 김기훈이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나와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긴장이 안 돼서 = '핫준영'이 된 좌완 하준영이다. KIA는 2019시즌을 0-2패로 시작했다. 첫 경기 패배의 아쉬움은 컸지만 위안거리도 있었다. 바로 '신예 불펜진'의 호투 릴레이였다. 양현종에 이어 고영창-이준영-문경찬-하준영-김윤동으로 이어지는 불펜진이 1실점은 했지만 3이닝을 잘 막아주면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특히 좌완 하준영은 1.1이닝 1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시범경기의 기세를 이어가며 24일 덕아웃에서 가장 '핫'한 선수가 됐다. 하준영은 "시범경기를 던져보니까 딱히 그렇게 긴장되지는 않았다. 확실히 긴장이 안 돼서 볼을 던져도 여유있게 승부를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첫 경기에서 오지환, 김현수, 조셉, 채은성, 박용택 등 까다로운 타자들을 상대한 하준영은 "김현수 선배가 가장 긴장이 됐던 것 같다"면서도 "강한 타자들을 상대한 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엄마가 팬이세요 = KIA 선수들도 반긴 '특급 시구자'였다. KIA는 24일 배우 이제훈을 시구자로 초청했다. 영화 건축학개론, 드라마 시그널의 배우로 유명한 이제훈은 경기 전 임기영으로부터 시구 지도를 받았다. 많은 취재진과 관계자들의 관심 속에 진행된 시구 연습. 생각처럼 공이 가지 않자 이제훈은 몇 차례 더 연습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시구 연습이 끝난 뒤 이제훈의 곁으로 공을 받아준 문경찬 등 구경나왔던 KIA 선수들이 몰려들었다. '엄마가 팬이세요', '잘 생기셨어요'라는 말과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등 KIA 선수들은 팬의 입장이 됐다. 뜨거운 관심 속에 마운드에 오른 이제훈은 자발적인 보충훈련에도 포수가 잡을 수 없는 먼 곳으로 공을 던지면서 아쉬움 가득한 표정으로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